

- 주요 뉴스: 연준 파월 의장, 고물가 지속 등으로 테이퍼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
 -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, 전년동월비 4.9% 올라 199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
 - ECB 부총재, 역내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매입을 2022년 말까지 지속할 가능성
 - 중국 11월 제조업 PMI, 50.1을 기록하여 3개월 만에 50 상회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와 통화정책의 조기 간축전환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1.9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 등으로 매수세 위축
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9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 변경 등이 반영
유로화 및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
독일은 오미크론 관련 우려 등으로 3개월래 최저 수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3.2원, -5.1원) 0.4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1/30일	11/29일	전일대비			11/30일	11/2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67.0	4,655.3	-1.90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4%	1.50%	-6bp
	유럽	462.96	467.24	-0.92%		독일	-0.35%	-0.32%	-3bp
	중국	3,563.9	3,562.7	0.03%	CDS 5y	한국	21bp	20bp	1bp
	일본	27,822	28,284	-1.63%		중국	54bp	52bp	2bp
	한국	2,839.0	2,909.3	-2.42%	위험 지표	EMBI+	-	410	-
환율	달러지수	95.91	96.34	-0.45%		VIX	27.19	22.96	18.42%
	유로화	1.1338	1.1291	0.42%		WTI유	66.18	69.95	-5.39%
	엔화	113.17	113.53	0.32%	원자재	구리	430.7	433.7	-0.70%
	위안화	6.3644	6.3882	0.37%		금	1,774.5	1,784.6	-0.56%
	원화	1,187.9	1,193.0	0.4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파월 의장, 고물가 지속 등으로 테이퍼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

-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. 또한 매우 강한 노동시장 및 소비부문 지표들을 볼 수 있고,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기에 12월 FOMC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
- 한편 오미크론의 확산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. 이에 더해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꺾어 노동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공급 병목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평가
- BMO Capital Market의 Ben Jeffery는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매파적이라고(hawkish) 지적. CME의 FedWatch 프로그램에 따르면, 내년 6월 첫 금리인상 가능성이 50%에서 70%로 증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연방정부 부채상한 확대 지연이 경기회복을 저해

- 옐런 장관은 다만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. 한편 오미크론에 대비한 최선의 대책은 백신 접종이라고 발언

■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, 9개월 만에 최저. 물가상승 등에 기인

- 해당 지수는 109.5로 전월(111.6) 및 예상치(111.0) 하회. 팬데믹 피로감 등도 이번 결과의 원인. 다만 4/4분기 성장률은 3/4 분기 대비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

■ JP 모건, 오미크론이 글로벌 주가 상승세를 멈추지는 못할 전망

- Dubravko Lakos-Bujas 스트래티지스트는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S&P500 지수가 내년 말에 5050을 기록하여 현 수준보다 9% 상승할 것으로 예상. 유럽 및 신흥국 증시가 각각 미국 및 선진국 증시보다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진단

■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, 전년동월비 4.9% 올라 199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

- 이번 결과는 전월(4.1%) 및 예상치(3.7%)를 모두 상회했고,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. 연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6%. Credit Suisse의 Neville Hill은 물가상승의 확산이 확인되고 있으며, 이는 ECB에게 금리인상 압력이 된다고 평가

■ ECB 부총재, 역내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매입을 2022년 말까지 지속할 가능성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또한 2022년 내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언급. 그의 이번 발언은 내년 3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

■ 독일 중앙은행 총재, ECB는 물가안정 이외의 사안을 정책목표로 세우지 않을 필요

- 바이트만 총재는 ECB가 부채가 많은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. 또한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회의적 시각을 피력

■ 독일 정부 경제정책 보좌관, 오미크론이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우려

- 모니카 슈니처 보좌관은 팬데믹 이전의 경제 수준 회복 시기가 오미크론 영향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.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
■ 중국 11월 제조업 PMI, 50.1을 기록하여 3개월 만에 50 상회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전월(49.2) 및 예상치(49.6)를 모두 상회. 하위 구성지수 가운데 생산지수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전력 제한 완화 등을 배경으로 큰 폭 상승. 신규수주는 4개월째 전월비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둔화

■ OPEC 회원국의 11월 산유량, 당초 계획했던 감산 완화 목표를 하회

- 11월 산유량은 일일 2774만배럴로 이전보다 일일 22만배럴 증가했지만, 당초 계획했던 25만4000배럴을 하회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(전월비): 0.9%, 8월(1.0%), 예상치(-)
- 미국 9월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(전년동월비): 19.1%, 8월(19.7%), 예상치(20.0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1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, 연준 베이지북, 미국 11월 ISM 제조업경기지수
-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, 미국 및 유로존 11월 마킷 제조업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 중앙은행, 오미크론 여파로 통화정책 조정에 나설 가능성 - 블룸버그

(For Central Banks, Omicron Is Another Word for 'Reset')

-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수개월 간 지속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매파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. 하지만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 우려는 유가 급락 등을 통해 이미 시장에 반영
- 이에 영란은행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확률은 향후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낮아질 전망. 연준도 오미크론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면, 테이퍼링 가속화 논쟁은 주요 정책 안건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판단
- ECB의 경우 유로화 약세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걸림돌로 작용. 하지만 여타 주요국이 통화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면 ECB 또한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 시행이 가능

■ 미국 기업의 대체 지표금리 적용, 빠른 전환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Why US companies need to stop using Libor right now)

- 차입을 위한 리보 활용이 SOFR(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)로 전환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 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은 유동성 관련 예측이 어려워 현금흐름 등에서 위험이 증가할 전망
- 리보와 연계한 대출에 차질이 생기면, 리보 연계 금융상품은 위험과 비용이 증가하여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. 이는 금융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유동성 문제와 거래비용 증가를 초래. SOFR의 채택이 잠재적 금융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

■ 미국 경제,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 - WSJ

(Omicron Uncertainty Will Linger a While)

■ 주식시장 및 인플레이션 판단, 오미크론보다 유동성에 집중할 필요 - 블룸버그

(Follow the Money, Not the Latest Covid Variant)

■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의 지속 여부, 내구재 수요 등이 주요 변수 - WSJ

(China's Frozen Factories Warm Up, a Littl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